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국내 교회 주소

(1989년 1월 1일 현재)

서울 스테이크 (252-8745) 1100-456

서울 중구 신당6동 292-22

삼청 와드 (732-9368) 1110-230

서울 종로구 삼청동 5번지

신당 와드 (234-1426) 1100-456

서울 중구 신당6동 292-22

청운 와드 (739-9294) 1110-030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농아 지부 1110-030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금호 지부 (295-3999) 1133-070

서울 성동구 행당동 286-64 용상 빌딩 2층

화양 와드 (466-0376) 1133-150

서울 성동구 군자동 265번지

영동 스테이크 (546-1745) 1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4-5

잠실 와드 (423-5753) 1138-229

서울 송파구 잠실 본동 231-24

영동 와드 (546-3688) 1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4-5

성남 와드 3-1801 461-600

경기도 성남 우체국 사서함 2호

천호 와드 (485-0907) 1134-070

서울 강동구 명일동 325-6

성남 중앙지부 (43-2805) 461-193

경기도 성남시 태평3동 3582

둔촌 지부 (485-0718) 1134-030

서울 강동구 성내동 416-12

반포 지부 (549-3890) 1137-0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35-42

마천 지부 (403-3292) 1138-1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372-9

서울 동

스테이크 (980-7035) 1136-600

서울 성북 우체국 사서함 15호

미아 와드 (988-2493) 1136-110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62

상계 1 와드 (972-6820) 1139-202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89-544 4층

상계 2 와드 (972-6820) 1139-202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89-544 4층

도봉 와드 (994-1109) 1132-030

서울 도봉구 쌍문동 714-28

번동 와드 (982-8198) 1136-110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62

장위 지부 (918-3849) 1136-142

서울 성북구 장위1동 234-11

동대문

스테이크 (924-3451) 1130-650

서울 청량리 우체국 사서함 192호

용두 와드 (926-1005) 1130-070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2-4

면목 와드 (434-8022) 1131-200

서울 중랑구 면목동 91-34

장안 와드 (245-0754) 1130-101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384-5

춘천 와드 (54-3119) 2100-093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74-1

태능 와드 (432-4689) 1131-200

서울 중랑구 면목동 91-34 (3/4)

교문 지부 (687-4426) 471-03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742번지

이문 지부 (963-7118) 1131-070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2-4

서울 서

스테이크 (813-8756) 1120-600

서울 서대문 우체국 사서함 162호

노량진 와드 (815-0364) 1156-052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230-14

상도 와드 (814-6995) 1156-052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230-14

봉천 와드 (879-8024) 1151-057

서울 관악구 봉천7동 1596-8

신림 와드 (857-5606) 1151-600

서울 남서울 우체국 사서함 97호

시흥 와드 (804-0152) 1152-030

서울 구로구 시흥 본동 897-6

안양 와드 (43-2535) 430-051

경기도 안양시 비산1동 554-7

독산 지부 (864-2601) 1152-011

서울 구로구 독산1동 289-12 5층

사당 지부 (534-5939) 1156-080

서울 동작구 동작동 1-22

반월 지부 (777-5642) 425-130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761-1

과천 지부 (502-4705) 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4번지 종교 빌딩 2층

서울 북

스테이크 (364-2777) 1120-600

서울 서대문 우체국 사서함 213호

충정 와드 (363-3961) 1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8-1

녹번 와드 (389-4953) 1122-600

서울 서부 우체국 사서함 91호

신촌 와드 (322-1982) 1120-180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00-23

마포 와드 (312-7374) 1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8-1

불광 와드 (385-5130) 1122-600

서울 서부 우체국 사서함 91호

홍제 지부 (738-7088) 1120-093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60-26

모래내 지부 (324-9065) 1120-180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00-23

금촌 지부 (941-5737) 4113-800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금촌리 산39-26

강서 스테이크 (692-7937) 1157-010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0-4

화곡 와드 (692-7937) 1157-010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0-4

강서 와드 (647-9400) 1157-052

서울 양천구 목2동 499-31

개봉 와드 (682-0089) 423-012

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102-12

신길 와드 (843-6370) 1150-07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87번지 3동 43부력 1호

신정 지부 (692-3736) 1158-092

서울 양천구 신월2동 510-1 해풍 빌딩 202호

신월 지부 (693-1298) 1157-010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0-4

공항 지부 (697-0933) 1158-052

서울 양천구 목2동 499-31

교회 및 지역 소식

영등포 지부 (678-0765) 1530-02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129
 부천 워드 (655-4776) 4222-0100
 경기도 부천시 남구 심곡동 579-3
 역곡 지부 (655-3208) 4222-0100
 경기도 부천시 남구 심곡동 579-3

인천 스테이크 (763-5142) 4000-6000
 인천시 인천 우체국 사서함 52호
 남동 워드 (73-0077) 4000-0900
 인천시 중구 답동 2번지
 남서 워드 (73-0077) 4000-0900
 인천시 중구 답동 2번지
 용현 워드 (868-5304) 4022-0200
 인천시 남구 용현동 359-1
 인풍 워드 (6-1805) 4400-6000
 경기도 수원 우체국 사서함 26호
 주안 워드 (427-3040) 4022-2001
 인천시 남구 주안1동 81-8

부평 워드 (524-3605) 4033-0100
 인천시 북구 부평동 401-5
 인천 농아 지부 (73-0077) 4000-0900
 인천시 중구 답동 2번지
 안석 지부 (427-3040) 4022-2001
 인천시 남구 주안1동 81-8
 오산 지부 (42-4212) 4440-3000
 경기도 오산 우체국 사서함 25호

경주 스테이크 (62-7215) 3600-2800
 충북 청주시 사창동 155-8
 당당 워드 (52-5774) 3600-0133
 충북 청주시 복문로3가 68-2
 연화 워드 (22-9088) 3600-6000
 대전 우체국 사서함 38호
 유천 워드 (22-9088) 3001-0533
 충남 대전시 중구 선화3동 246-5
 세성 지부 (44-9247) 3800-0900
 충북 충주시 용산동 479-10
 삼성 워드 (72-4056) 3000-1900
 충남 대전시 동구 홍도동 63-2
 논산 지부 (32-1142) 3000-8000
 충남 논산 우체국 사서함 14호
 부대 워드 (62-7216) 3600-2800
 충북 청주시 사창동 155-8
 부주 워드 (52-4968) 3114-6000
 충남 공주 우체국 사서함 2호
 부산 지부 3112-6000

충남 금산 우체국 사서함 12호

부산 스테이크 (552-0443) 6007-0622
 부산시 동래구 은천2동 1039-1
 수정 워드 (43-2623) 6001-0333
 부산시 동구 수정3동 658-10
 은천 워드 (552-0443) 6007-0622
 부산시 동래구 은천2동 1039-1(1/2)
 광안 워드 (753-6335) 6008-1002
 부산시 남구 광안2동 509-16(28/4)
 신정 워드 (74-7890) 6800-6000
 경남 울산 우체국 사서함 125호
 방어진 워드 (32-3226) 6881-0622
 경남 울산시 중구 전하2동 678-2
 연산 지부 (863-8465) 6007-0700
 부산시 동래구 거제1동 15-18(21/3)
 울산 지부 (92-4046) 6800-6000
 경남 울산 우체국 사서함 56호

부산 서

스테이크 (243-5909) 6002-1003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번지
 대신 워드 (242-6819) 6002-1003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번지
 영도 워드 (49-6278) 6006-0444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4가 11-3
 마산 워드 (42-7232) 6300-6000
 경남 마산 우체국 사서함 40호
 진해 워드 (2-7589) 6445-6000
 경남 진해 우체국 사서함 4호
 진주 워드 (42-7223) 6600-6000
 경남 진주 우체국 사서함 29호
 괴정 워드 (204-0905) 6004-0100
 부산시 사하구 당리1동 338-6
 충무 워드 (2-8836) 6500-6000
 경남 충무 우체국 사서함 4호
 구포 지부 (334-0878) 6116-6000
 부산시 북부산 우체국 사서함 2호
 창원 지부 (84-1787) 6441-6000
 경남 창원 우체국 사서함 66호
 밀양 지부 (52-4994) 6288-8000
 경남 밀양 우체국 사서함 25호
 삼천포 지부 (32-7995) 6665-6000
 경남 삼천포 우체국 사서함 3호
 김해 지부 (33-5507) 6211-6000
 김해 우체국 사서함 17호

대전 지부 3555-6000
 충남 대전 우체국 사서함 10호
 온양 지부 3336-6000
 충남 온양 우체국 사서함 3호

서울 선교부 (734-3653) 1110-602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서울 서 선교부 (585-2361) 1335-6000
 서울 영동 우체국 사서함 62호
 안성 지부 (73-1592) 4568-8000
 경기도 안성 우체국 사서함 8호
 평택 지부 (53-7817) 4500-6000
 경기도 평택 우체국 사서함 9호
 이천 지부 4667-8000
 경기도 이천 우체국 사서함 14호

대전 선교부 (524-9218) 3000-6000
 대전 우체국 사서함 38호

부산 선교부 (552-7011) 6007-6000
 부산 동래 우체국 사서함 73호
 제주 지부 (52-5861) 6900-6000
 제주 우체국 사서함 80호
 서귀포 지부 (33-0270) 6977-6000
 서귀포 우체국 사서함 32호

대구 스테이크 (2-0757) 7000-6000
 대구 우체국 사서함 124호
 수성 워드 (752-2007) 7006-0344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4가 1191-3
 중리 워드 (553-6192) 7003-0155
 대구시 서구 평리5동 1542-11
 대명 워드 (68-3212) 7005-0322
 대구시 남구 대명2동 1820-13
 구미 지부 (52-1889) 7300-6000
 경북 구미시 구미 우체국 사서함 13호
 포항 지부 (74-7618) 7900-6000
 경북 포항 우체국 사서함 25호
 김천 지부 (32-9079) 7400-6000
 경북 김천 우체국 사서함 6호
 경주 지부 (43-5298) 7800-6000
 경북 경주 우체국 사서함 22호

교회 및 지역 소식

안동 지부 (2-6631) 760-6000
 경북 안동 우체국 사서함 185호

영천 지부 (82-3113) 770-6000
 경북 영천 우체국 사서함 7호

광주 스테이크 (223-0397) 501-014
 광주시 동구 충장로4가 34번지

충장 와드 (221-2556) 501-014
 광주시 동구 충장로4가 34번지

풍향 와드 (56-8626) 500-042
 광주시 중흥2동 349-38

동성 와드 (365-3055) 501-6000
 광주 우체국 사서함 152호

목포 와드 (72-6973) 530-6000
 전남 목포 우체국 사서함 107호

려수 와드 550-6000
 전남 여수 우체국 사서함 12호

논천 지부 (2-9936) 540-6000
 전남 순천 우체국 사서함 12호

구성 지부 520-6000
 전남 나주 우체국 사서함 5호

광양 지부 545-8000
 전남 광양 우체국 사서함 10호

송정 지부 506-6000
 광주시 광산구 송정 우체국 사서함 118호

연주 스테이크 (4-8416) 560-6000
 전북 전주 우체국 사서함 38호

연주 와드 (4-8416) 560-1900
 전북 전주시 덕진동 1가 1261-4

송 와드 (4-8416) 560-1900
 전북 전주시 덕진동 1가 1261-4

이리 와드 (52-4073) 570-6000
 전북 이리 우체국 사서함 24호

군산 와드 (62-8758) 573-6000
 전북 군산 우체국 사서함 40호

정주 와드 580-6000
 전북 정주 우체국 사서함 9호

중앙 와드 (52-4073) 560-6000
 전북 전주 우체국 사서함 138호

원 지부 (2-2855) 590-6000
 전북 남원 우체국 사서함 7호

제 지부
 김제군 김제읍 요촌리 412-27

원주 지방부 (46-4164) 220-6000
 강원도 원주 우체국 사서함 7호

원주 지부 (43-9111) 220-6000
 강원도 원주 우체국 사서함 7호

영월 지부 (73-1492) 230-8000
 강원도 영월 우체국 사서함 7호

태백 지부 (52-8702) 235-6000
 강원도 태백 우체국 사서함 21호

제천 지부 (42-1235) 390-6000
 충북 제천 우체국 사서함 9호

강릉 지방부 (42-8776) 240-6000
 강원도 동해시 묵호 우체국 사서함 8호

강릉 지부 (42-8776) 210-6000
 강원도 강릉 우체국 사서함 41호

동해 지부 (2-3921) 240-6000
 강원도 묵호 우체국 사서함 8호

삼척 지부 (2-2150) 245-6000
 강원도 삼척 우체국 사서함 4호

속초 지부 (32-7507) 217-6000
 강원도 속초 우체국 사서함 7호

천안 지방부 330-6000
 충남 천안 우체국 사서함 19호

천안 지부 330-6000
 충남 천안 우체국 사서함 19호

홍성 지부 (3-6730) 350-8000
 충남 홍성 우체국 사서함 10호

“내가 거할 곳이 여기라는 목적지를 정확히 제시해 주었으며”

나 유순 자매 선교사

선 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갖 침례 받은 나는 1여 년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찾을 수 없는 강한 지식의 확신은 곧바로 나의 마음과 생각의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만나서 복음의 원리와 기초적인 교리를 공부하면서 그들의 몸매 밴 겸손은 그들이 주님의 추종자들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토론을 하면 할수록 강하게 내 마음 속에서 솟구치는 뜨거움과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라는 조용한 외침과 함께 침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1985년 11월 10일, 이 날은 내가 하나님의 결을 떠나 이 지상에 온지 20여 년이 지난 뒤에서야 온전히 주님을 찾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뒤 스스로 아름다운 딸로 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탄탄한 간증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선 물론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끝까지 읽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구절에 가서는 평화로움과 함께 가슴 벅차오게 울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엘마의 외침!

얼마나 강한 신앙인가? 힐라맨의 이천 용사들!

얼마나 숭고한 사랑인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방울!

부활! 그리고 가르침!

경전의 귀절 귀절은 뼈에 사무치는 것이었고 예언자들의 목소리와 간증은 저의 삶의 징소리였습니다.

표준 경전을 열심히 읽고 생각하며, 더욱 허리를 졸라매며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을 때, 나는 새벽의 찬란한 빛속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내 눈 앞에서 평화롭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것을 보고 일어났을 때 잘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실로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실은 다시 한번 나에게 보여졌고 그것은 조용하고 지극히 평화스러운 서울의 성전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눈이 뜨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경전공부와 함께 나는 표적을 구하기를 몇 번이나 기도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교리와 성약 63:7~11에서 나는 나의 기도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간, 그동안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나에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바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께 향한 신앙과 행위를 보여 그분과 일치될 때 그분은 그분의 뜻을 밝히시며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엘마서 32장)

선교 사업과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러한 일들은 고통을 견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어느때엔가는 용기가 없어서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임 회피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동기와 소망을 갖게 도와 주신 분은 주님이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훌륭한 연주 앞에는 항상 전주곡이 흐르듯이 지금의 내 앞에서는 경험의 전주곡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와 공부의 힘은 실질적인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선교사로서 부름장을 받고 한국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하기 위해 서울 성전의 문 앞에 서던 순간 나는 전에 보았던 새벽의 성전과 같은 모습에 나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과 함께 어우러진 묘한 느낌을 삼키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거기 계시지요? 정말 계시지요?”라는 나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얼마나 오고 싶었던 곳인가!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이었나!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듯한 푸근함을 느꼈습니다.

가족들과는 웃으면서 떠나왔지만 성전 문 밖에서 “나는 이곳이구나, 바로 이곳이구나!”를 마음 속으로 외치며 그리도 오기를 갈망했던 성전에 들어오니 이 느낌을 표현할 길이 없어 울고만 있었습니다.

성전 주위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운 색색의 꽃과 초록의 풀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모인 장로들과 자매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성전 모퉁이의 돌을 만져보면서 어느 때와 달리 덧없이 행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끼며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은 다가왔고 성전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부에서만 보아 왔던 성전. 이제는 내가 직접 성전 의식의 참여자로서 개인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게 되었을 때 그동안 경전을 통해서 느꼈던 그분의 따스한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의 또다른 성품과 자비하심이 내 온몸에 스며들어 내 영혼을 밝게 하는 영의 감동에 표현할길 없는 행복함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듯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성전은 주님의 집이요, 기도의 집이요, 금식의 집이며, 신앙의 집이며, 사랑의 집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성전 의식은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었으며 또한 내가 거할 곳이 여기라는 목적지를 정확히 제시해 주었으며 딸로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로서 봉사하면서 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주님을 대표하고 있는 자매 선교사로서 실제의 복음 생활과 어우러진 부드러운 미소와 아름답고 순화된 말씨와 행복한 모습은 주님을 알고자 하는 선량하고 지극히 도덕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다란 미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성전에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 주며 갖 침례 받은 자들에게는 성전에 가기 위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며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혹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아십니까?”라는 질문 속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님은 나와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며 모든 이들은 그분 앞에 나와야 함을 온 마음을 다해 조용하고 겸허하게 외치기를 노력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해야 할 말이며 주님께서 걸으신 길은 내가 걸어야 할 길이며, 주님께서 보여 주신 모든 모범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의 사랑에 오늘도 조금 더 충실하기를 조용히 다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